

07

INTERNATIONAL BUSINESS COLLEGE
TALATONA EXHIBITION CENTER
MEGA MULTI-FUNCTIONAL COMPLEX



김범준 Bumjoon Kim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88)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1992)

한국건설기술연구소 근무(1991)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연구본부 본부장(1993~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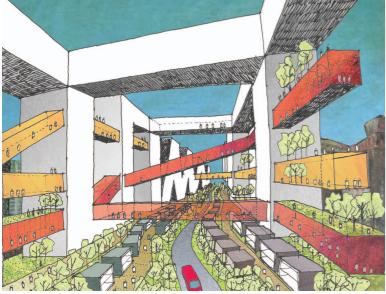
한경대학교 건축학부 강의_설계(2002~2003)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강의_설계(2004~현재)

고양시 일산문화센터 신축설계(부소장/실무담당)(2002)
서울중앙우체국 신축 T/K_당선(부소장/실무담당)(2003)
양재복합물류센터 신축현상설계_당선(부소장/실무담당)(2004)
첨단 IT콤플렉스 T/K 참여(부소장/실무담당)(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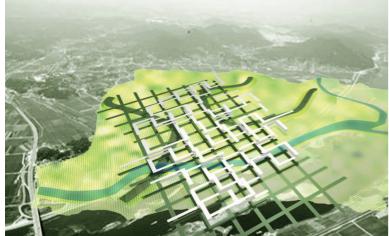
스리랑카 주상복합 신축설계(소장/프로젝트 총괄)(2006)
동남권 유통단지 딜락 T/K 참여(소장/프로젝트 총괄)(2006)
Mega Office Complex in Kazakhstan(소장/프로젝트 총괄)(2006)
International Business College in Angola(소장/프로젝트 총괄)(2006)
Talatona Exhibition Center in Angola(소장/프로젝트 총괄)(2007)
성남시청사 T/K 참여(소장/프로젝트 총괄)(2007)
Saina Office in Kazakhstan(소장/프로젝트 총괄)(2007)
Orbita Residential Complex Project in Kazakhstan(소장/프로젝트 총괄)(2007)
Yubiliny Village in Kazakhstan(소장/프로젝트 총괄)(2007)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219번지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4-20
Tel_ 02.3670.3230 / C.P. 017.311.4358
E-mail_ bjkim@spacea.com



“도시의 본질적인 효율과 매력은 수많은 사람과 사건, 프로그램들이 모이고 교류하는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사람, 프로그램, 건물사이 프로그램들의 소통과 공공영역은 유지되어야 하는 도시의 기본적인 가치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의 도시에서 사유영역은 점점 더 커지는 반면, 공공영역은 점점 더 왜소해지고 있다. 또한 건물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따라 도시와 건물은 점점 더 단절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나의 관심은 건축과 도시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새로운 도시적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으로 구체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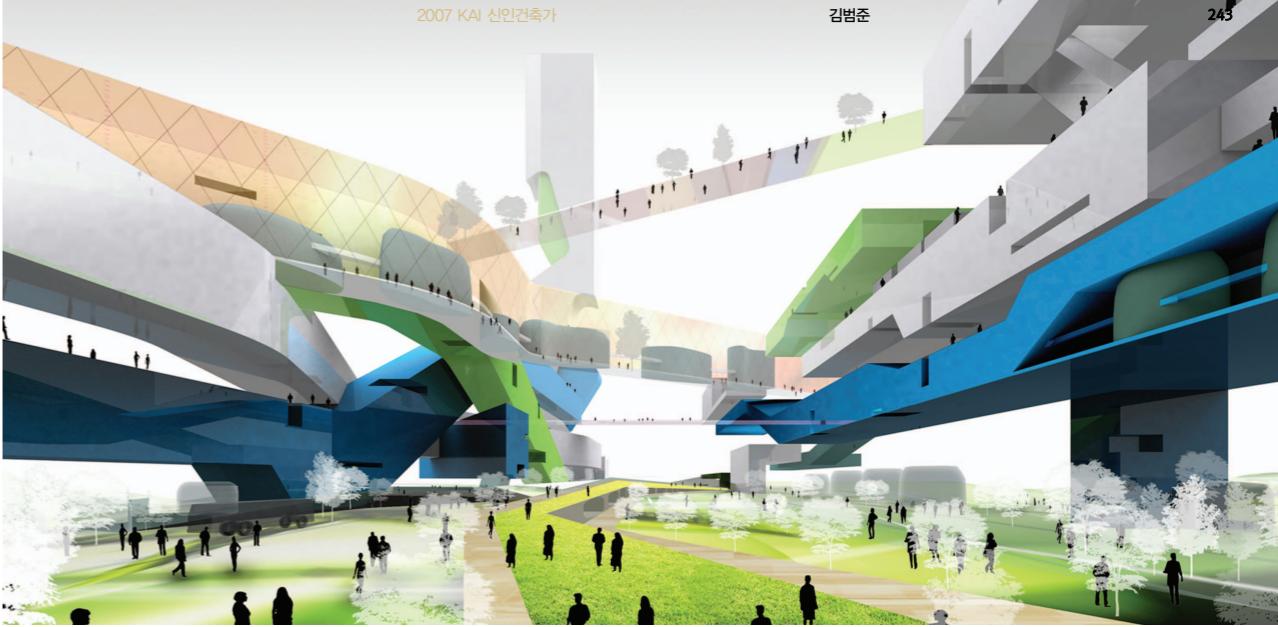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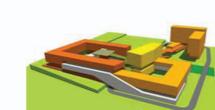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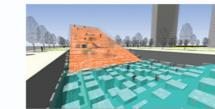


Strategy 1

건물을 입체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도시적 공간(urban space)을 만든다

첫번째 전략은 건물과 도시, 건물과 건물의 접속과 연결에 의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건물을 사이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거기에 도시적 활동의 흐름과 프로그램들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도시에서 건물들이 고립되고, 도시와 건물이 단절되는 상황에 대한 극복과 더불어 기존 도시에서 버려졌던 건물 사이의 공간들에 새로운 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성을 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시와 건축이 모호하게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적 장소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Strategy 2 건물과 도시적 장소 urban place를 동시에 만든다.



Strategy 1 건물간의 입체적 연결을 통해 새로운 도시적 공간 urban space을 만든다.

Strategy 2

건물과 도시적 장소(urban place)를 동시에 만든다

건물이 대지에 배치되는 순간 외부공간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건물과 외부공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순간 외부공간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덩어리(mass)에 여러 방식의 변형(deformation)을 가함으로써 건물과 도시적 장소를 동시에 만드는 방식에 관심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내부와 외부, 건물과 도시는 각기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하나의 매스 속에 뒤엉켜 있을 것이며 이것이 건축과 도시 사이의 중간영역을 만드는 두번째 전략이다.



International Business College in Angola



앙골라(Angola)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유사한 역사를 가진다. 약 400년의 포루투갈 식민지 시대를 거쳐 1974년에 독립한다. 그러나 독립 후 약 40년간 내전을 겪고 2002년에 와서야 미국의 개입으로 내전이 종식된다. 따라서 도시, 건축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앙골라의 건축주가 미국의 Warton school과 유사한 경영전문대를 요구했을 때 우리는 우선 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진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40년의 공백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여유를 빼앗아갔다. 그들은 당장 다음세대들이 공부할 공간을 가지고 싶어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1년 여에 걸친 프로그램 변경으로 난항을 겪고, 현재 계획설계를 마치고 다음 단계를 대기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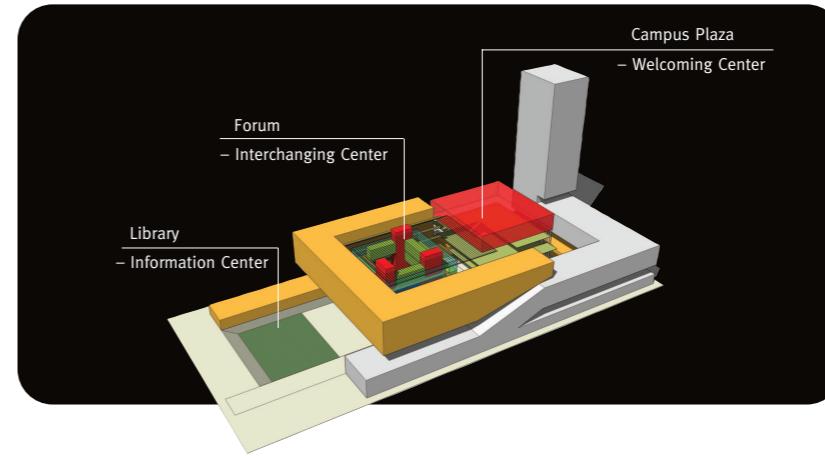
Forum space

MBA의 특징은 실무와 교류 및 연계가 활발하다는 점이고 이를 위한 건축적 장소가 바로 Forum space이다. Forum space는 파티, 미팅, 휴식, 만남 등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지는 장소 중심이 된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교류의 중심으로 Forum space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부터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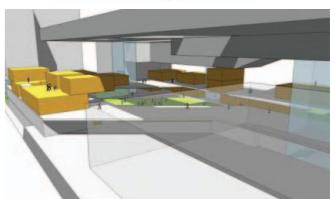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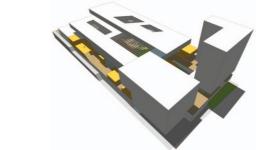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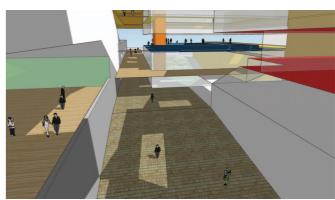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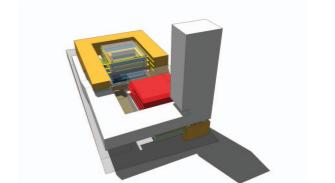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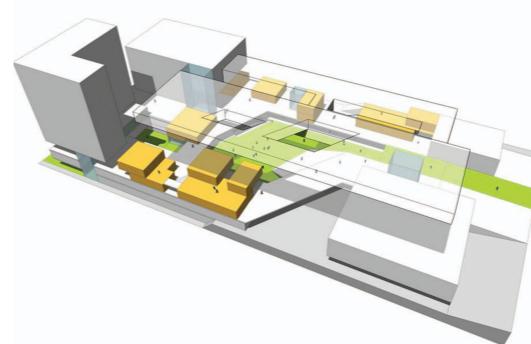
Compact campus

대지 주변은 상업, 주거 등 도시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단과대학이지만 기숙사, 도서관, 대강당, 체육시설, 균형상업 등 하나의 캠퍼스로 자족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는 좁은 대지에 들어서는 작은 대학이지만 자족적인 캠퍼스(Self-genesis Campus)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세 개의 중심(center)'을 갖는 하나의 완결적인 캠퍼스"를 제안했다.



The Roof / Campus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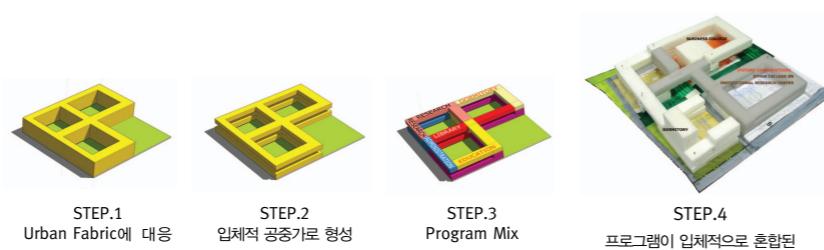
고온 건조한 앙골라의 기후는 일사를 차단하되 바람을 통하게 하면 시원하다는 특징이 있다. 대학 건물에 완벽한 기계냉방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로우 테크(Low-tech)적인 수법으로 햇볕을 막는 거대한 지붕을 계획하였다. 거대한 지붕은 그 자체로 행정동과 연구동을 수용하며 지붕 하부는 강의실, 도서관, 기타 시설들이 외부 Forum을 중심으로 하는 Campus village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Forum space는 실제 동선의 중심이 됨으로써 우연한 만남과 교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Campus City

"하나의 건물이라기보다는 도시적 장소(Public Space)를 만든다."

본 프로젝트는 어느 대학 캠퍼스에 비해 매우 높은 밀도(용적률 약 250%)로 시작된다. 또한 전체 대지의 약 1/3은 사업수익에 대한 필요로 향후 상업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캠퍼스 내부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등 캠퍼스와 도시의 경계가 점점 얹어지는 추세이므로, 우리에게 "하나의 단과대학건물이 아닌 도시적 장소를 만든다"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었다. 도시적 장소에 대한 필요성은 건물이 위치할 Talatona 신도시의 도시개발형태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앙골라 수도로 포루투칼 식민지시대부터 건설되어온 Luanda시가 적절한 크기의 도시블럭으로 도시와 건물이 적절히 소통하고 있는 매력적 도시구조인 반면, Talatona 신도시는 분당 등 국내 신도시와 유사하게 대규모 슈퍼블럭으로 매우 폐쇄적인 단지형으로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도한대로 business college를 매력적인 도시적 장소로 만들어낸다면 본 프로젝트는 단위건물 프로젝트 이상의 도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TEP.1
Urban Fabric에 대응

STEP.2
입체적 공중가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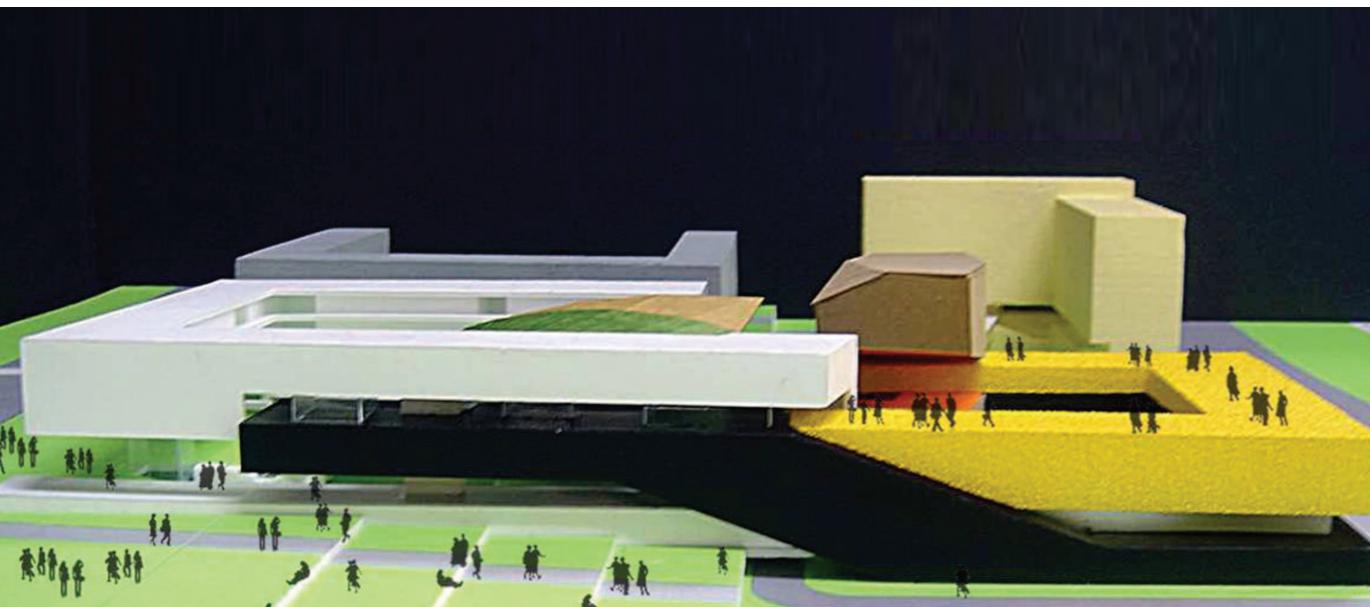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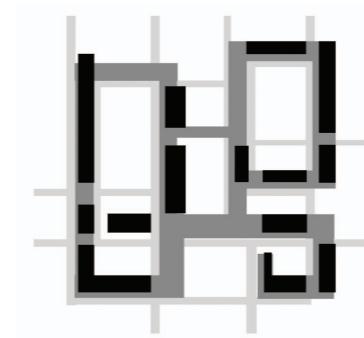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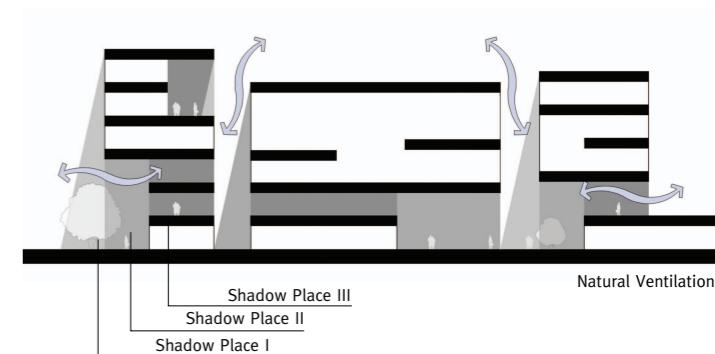
STEP.3
Program Mix

STEP.4
프로그램이 입체적으로 혼합된
도시적 장소를 만든다.

Shadow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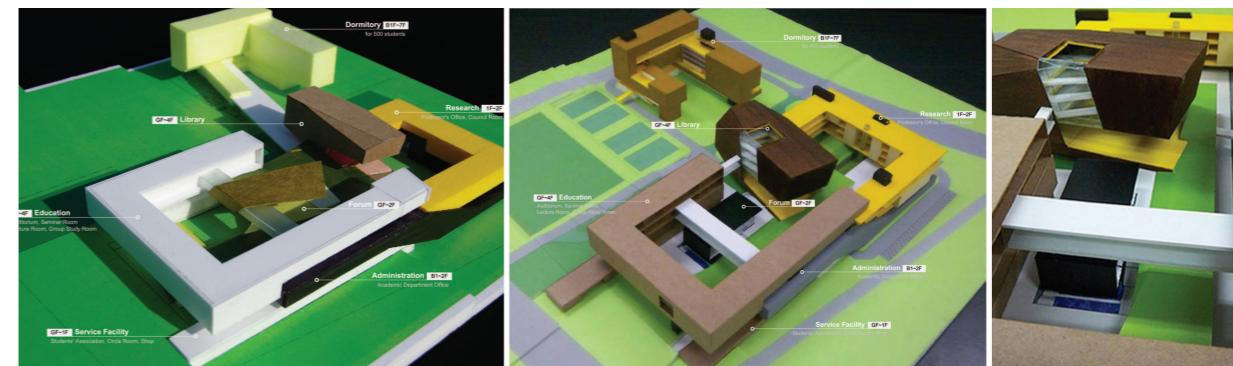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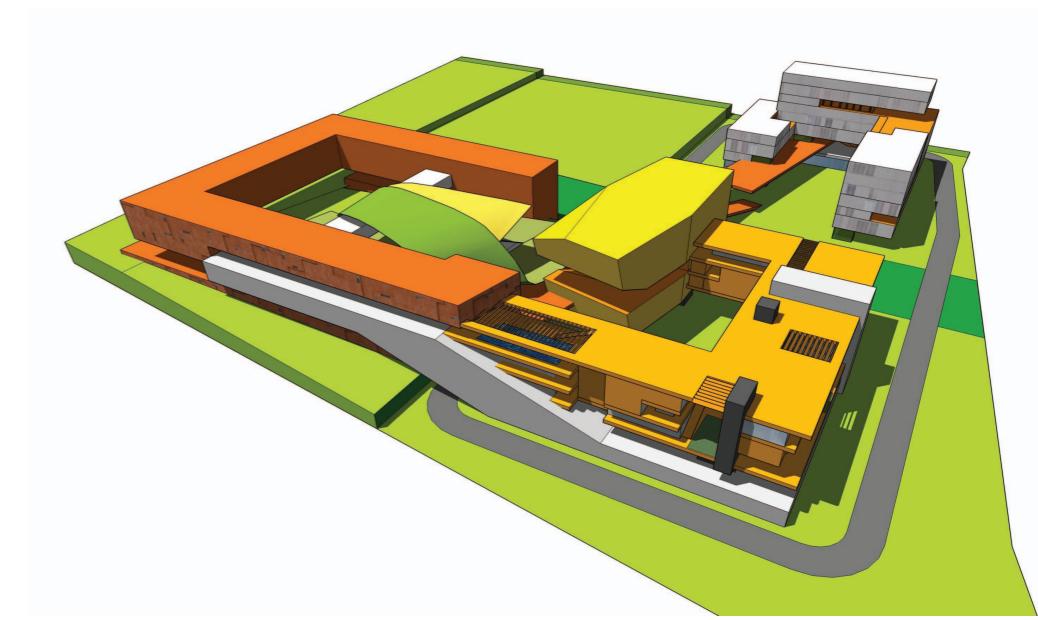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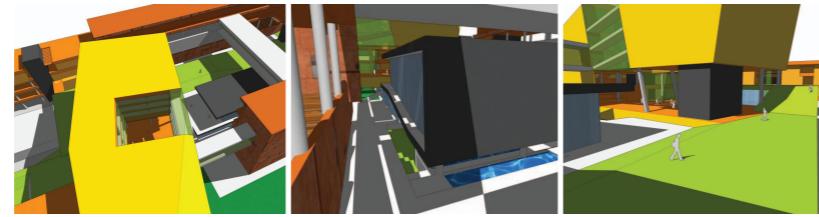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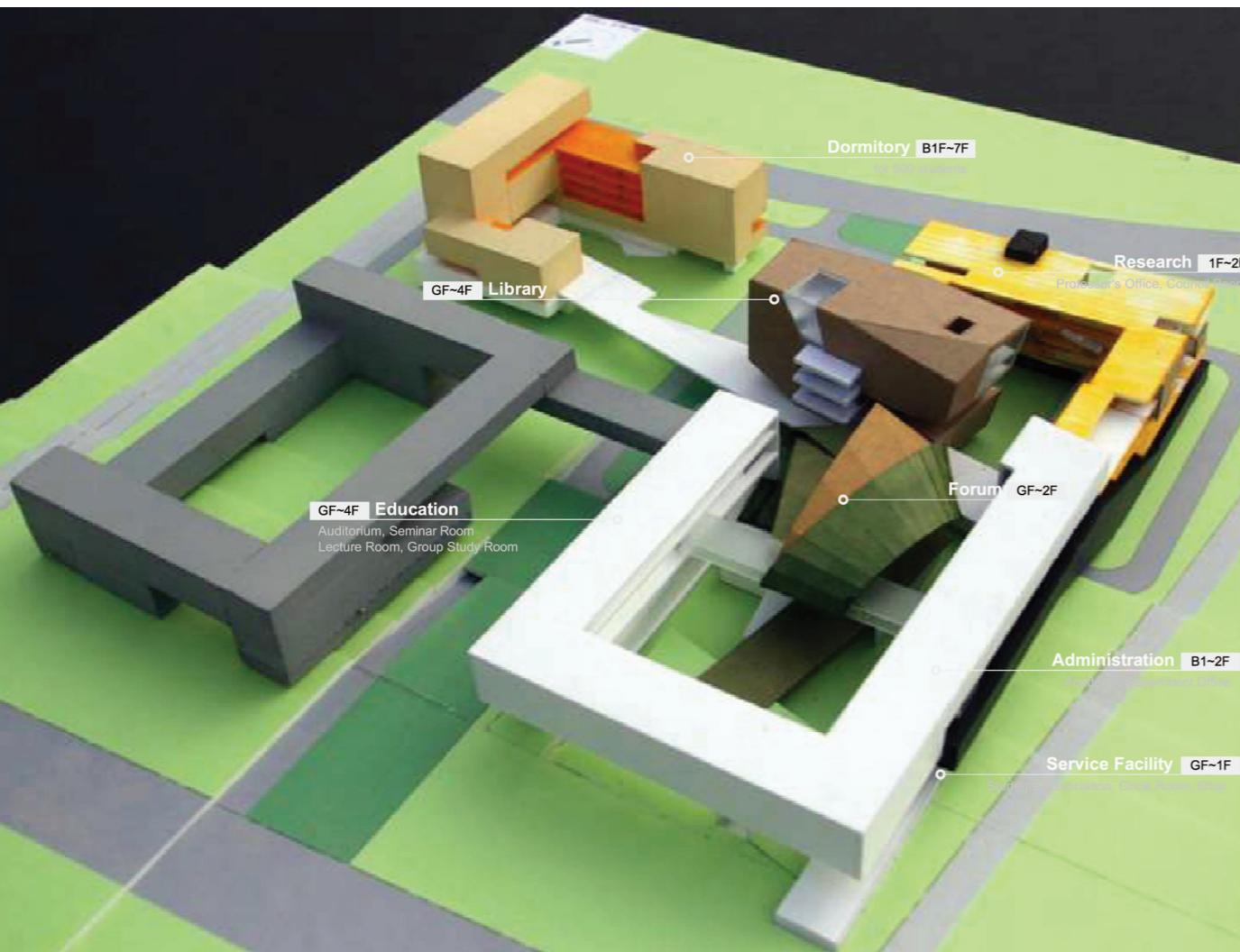
기후에 대한 로우 테크(Low-teck)적 반응

고온 건조한 앙골라의 기후는 일사를 차단하여 바람이 통하게 하면 시원한 장소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에서도 그러하듯 대학건물에 완벽한 기계냉방을 적용하는 것은 비용상 어렵다는 판단으로 강의실, 연구실 등 냉방이 반드시 필요한 공간 외에 복도, forum space 등 공용공간의 많은 부분을 외부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늘이 없는 외부공간은 기후 특성상 활용이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건축적 해결이 필요했다. 따라서 우리가 제안하는 밀집된 건물 형태에 의해 만들어지는 shadowed passage와 건물 사이의 틈(slit)들은 앙골라의 기후에 대한 로우 테크적 대응방법이 된다.



평면적 단순함과 입체적 복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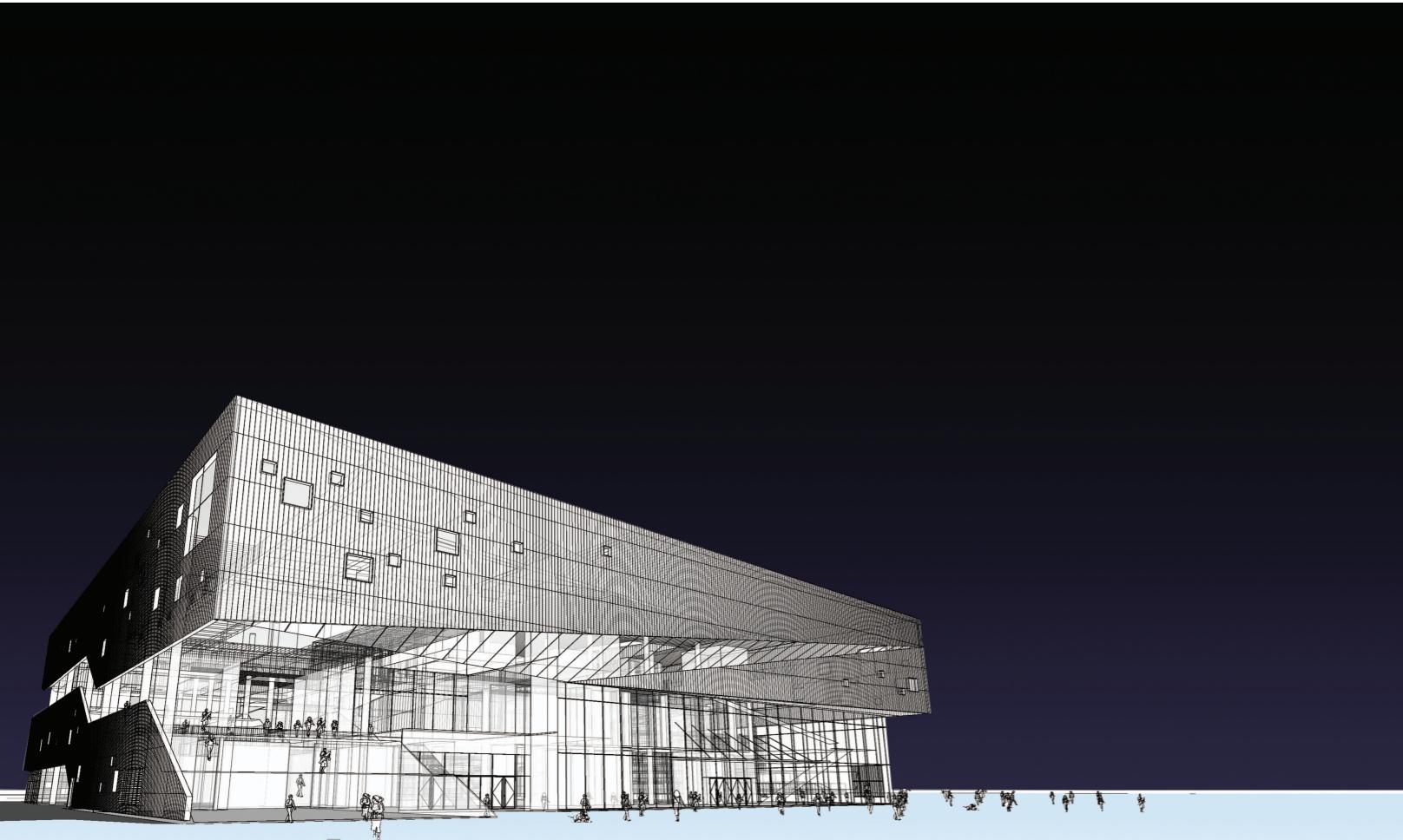
“평면에서는 도시조직에 대응하여 단순함을 가지되 입체적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혼합하는 전략을 통해 사람들은 이 장소에서 도시적 차원의 입체성과 밀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Talatona Exhibition Center

in Ango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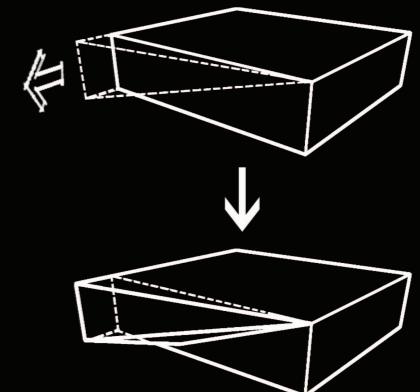
위치	Talatona, Angola
대지면적	15,514.39m ²
연면적	29,699.89m ²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프로그램	전시·연회-1,400석 Conference-1,400석 Restaurant-4개 합계 1,00석



Simplicity with Complexity

계획부지는 앙골라의 수도인 Luanda 인근에 개발되고 있는 Talatona신도시에 위치하며 대지와 인접하여 공간건축에서 설계한 컨벤션 센터(convention center)가 이미 완공되어 있는 상태이다. 2004년 컨벤션 센터 설계당시에는 대지 주변에 건물이 전혀 없는 상황 즉 고려할만한 도시적 맥락이 없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단순한 박스 형태의 건물로 계획했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인 전시시설을 계획할 단계에서는 이미 완공된 컨벤션 센터의 박스 형태가 고려해야 하는 도시적 맥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단순한 박스 형태에서 출발하되 국가적 공공시설로서 가져야 하는 상징성과 강력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계획의 출발이 되었다. 컨벤션 센터가 타원 등의 내부 볼륨을 투명한 외피(Box)로 감싸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단순한 박스에 변형(deformation)을 가하는 전략을 취했다. 결과적으로 컴퓨터에 의한 단순한 조작으로 복합성을 내포하는 단순함을 만들고자 하였다.

BOX DEFORMATION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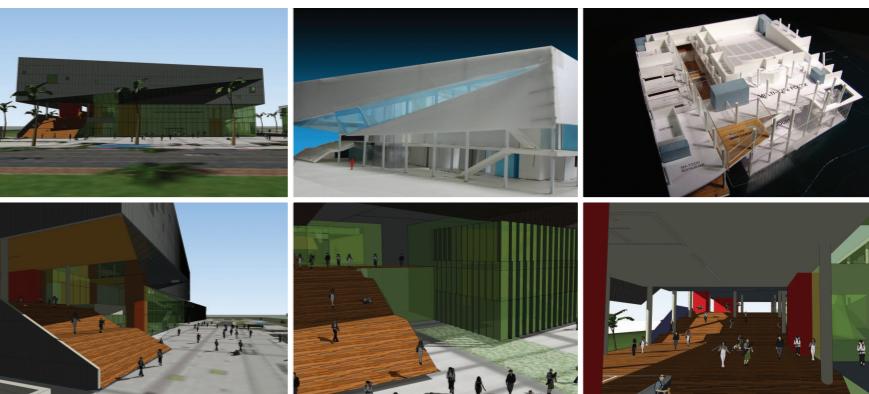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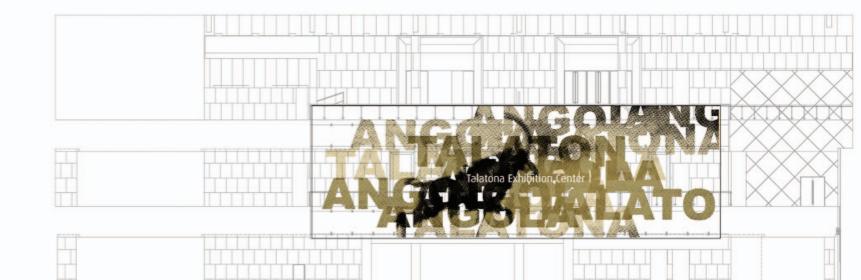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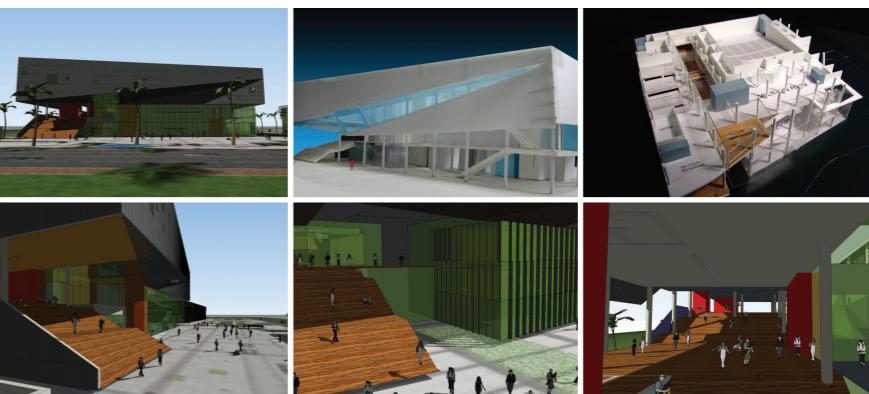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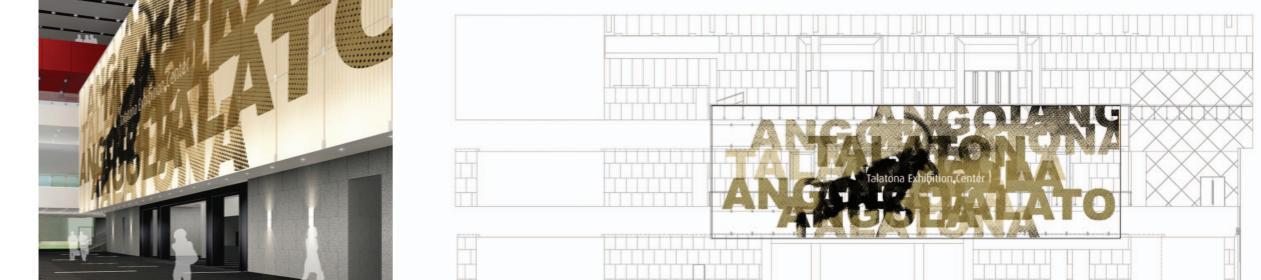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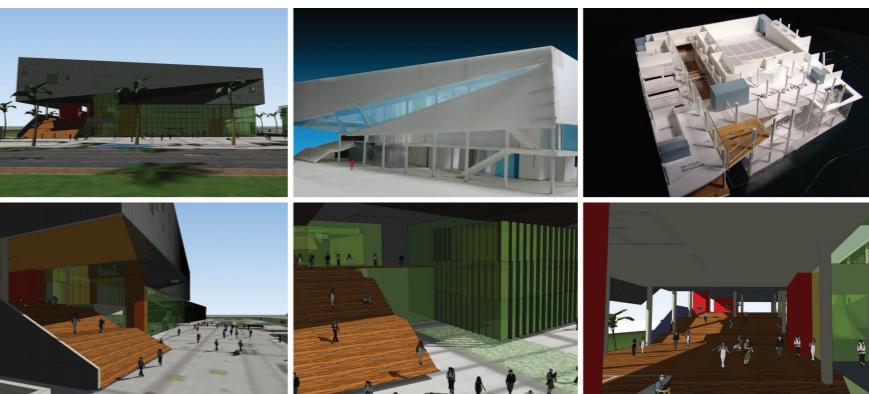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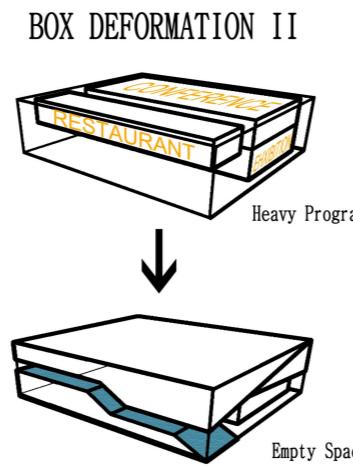


Exhibition center

Conven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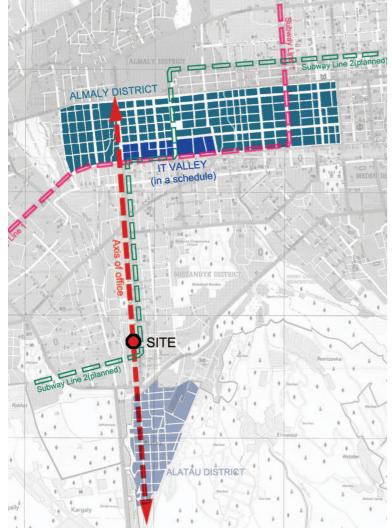
Emptiness = Potentiality

이 프로젝트는 1,400석의 컨퍼런스 홀과 대규모 전시공간이라는 무거운 프로그램을 수용해야 하는 건물이다. 따라서 그 기능의 무거움과 혼집함에 상응하는 여백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계획된 계단형 여백공간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기능을 수용하는 잠재성의 공간이다. 또한 도시적 차원에서 이 여백공간은 건물들과 도시가 두터운 담장으로 고립되어가는 Talatona의 도시상황에서 도시와 건물이 소통하는 의미 있는 여백공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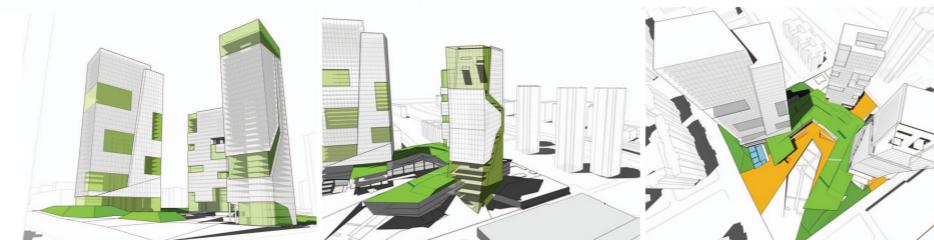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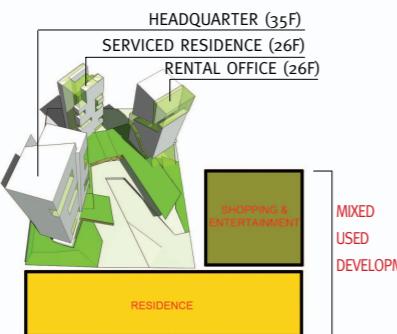
Mega Multi-Functional Complex

in Kazakhstan



"High-rise Office에 입체적인 Public Space를 만든다"

본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의 구 수도인 Almaty에 위치하며 구도심(CBD)에서 약 1.5km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는 업무단지로 입지상의 불리함이 있다. 그러나 부지우측에 Almaty의 새로운 쇼핑장소로 자리잡을 메가 센터(Center)가 있고 동쪽으로는 100만m² (6000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축주가 제시한 오피스 외에 주거(Serviced residence)와 쇼핑시설이 결합된 자족적 MXD를 제안했다.



2nd Proposal

1차 제안 후 건축주는 터키업체와 함께 MD Planning을 진행해왔고 1년 만에 다시 2차 제안을 요청해왔다. 주된 요구사항은 사무실을 1개동을 추가하고 층수는 25층(알마티시 요구사항)으로 낮춰 달라는 것과, 기존 메가 쇼핑센터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 메가 업무단지 (Mega office complex)에 대해서도 상업시설을 대폭 늘려 달라는 것이었다.

